

CARITAS Palliative Care Unit

지난 97년 7월, 아일랜드에 머물면서 아일랜드 호스피스 활동이 궁금하여 Dublin, Harods Crass에 있는 Our Ladys Hospice에 이틀 동안 방문하여 견학하였다. 이 호스피스는 1879년에 사랑의 수녀회가 설립하여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 역사를 가진 곳으로 4년전에 새 건물을 지었고 호스피스 이름도 Caritas Palliative Care Unit로 바꾸었습니다.

현재 이곳의 입원환자는 40명,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이 가정호스피스를 통하여 200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. 이 Palliative Care Unit 안에서도 Day Care Center가 있고,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진찰을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, 목욕, Aromatherapy, Occupational therapy, 미용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은 Day Care Programme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 봉사, 점심과 야외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 Caritas Palliative Care Unit를 방문하고 나니 한국에서는 호스피스면에서 해야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성 골롬반 의원 호스피스과장
한 현 희 노라 수녀

